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인과는 절대 가까이하지 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4호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조계종 '직장협의회' 구성 종무원 노동 개선 신호탄

공양주보살, 사찰종무원 등등 불교계 종무는 스님들 외에도 많은 재가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런 재가자들은 무보수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는 전문 종사자들도 포함돼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계 최초로 이런 종사자들의 근무와 사업 참여 등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제20대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정유탁, 이하 종무원조합)는 9월 7일 조계종 총무원 측과 노사협의회 구성을 9월 1일자로 타결했으며 '직장협의회'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가 2005년 명칭을 변경하며 탄생한 조직으로 당시 노조 설립이 구성원들의 입장차이로 무산된 이후 종무원 상조 ·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정유탁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사협의회는 총무원 측과 종무원 조합에서 각각 4인을 대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타결된 노사협의회는 사회법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의거한 것으로 사회에서는 이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쌍방의 상호소통 창구로 협의체를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종무원조합은 올해 3월부터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종교단체라는 특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노동 아닌 헌신만 강조

이번 조계종 총무원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종교계 내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참여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종교계 종무기관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그동안 요원했다.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노동'보다 '헌신'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발행인은 "성직자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보다는 '헌신' '봉사'의 개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개념에서 정당한 요구

9월 1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승인
종교계 중앙기관서 도입 첫 사례
총무원 · 조합서 각 4인 선발키로
일방적 지침서 합의통한 진행 변경

노동 인식 떨어지는 종교 특수성
종교 노조 · 협의체 있는 곳 '극소수'
종교특수성 감안한 새 문화 기대

가 신심과 신념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인 성직자와 생계가 달려있는 피고용주인 비성직자가 노무 관계형성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노동 개념으로 보면 바깥보다 종교 내부가 더욱 열악한 환경이 형성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계에서 노동 인식은 불교계가 가장 앞서 있다. 이번 중앙종무기관의 노사협 타결에 앞서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과 불교방송을 비롯한 교계 언론사 등이 노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중앙종무기관은 협의체 구성이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가톨릭 병원을 비롯한 산하 기관도 노조설립 문제로 수년째 격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개신교는 개별교회 주도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대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에서 조직화가 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인 박영락 목사는 "안타깝게도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등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개별교회 위주로 제도를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종교특수성 감안한 노사문화 필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전반의 노사시스템 확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각 종교가 교리 내에 노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의 노동현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작 종교 내부 노동 인식이 열악한 만큼 인식 개선도 이뤄나갔으면 한다"며 "일방적인 지시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진행, 이로 인한 종사자들의 참여 증가, 종권 변화에도 유지되는 고용안정성과 이에 따른 전문화 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다만 시민단체와 같이 종교계도 단순히 물질적 요인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각 종교체계에 제대로 작동하는 구성원 협의체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홍수 피해' 미얀마서 펼치는 자비의 손길

미얀마 홍수피해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총재 자승)이 파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6일 미얀마 홍수피해 지역 조계종긴급구호단 파견 출정식을 열었다.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복지재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단은 6일 밤 10시 미얀마 양곤에 도착, 보트수송을 통해 약 5500만원 분량의 식수와 식량을 전달하며 빠른 구호활동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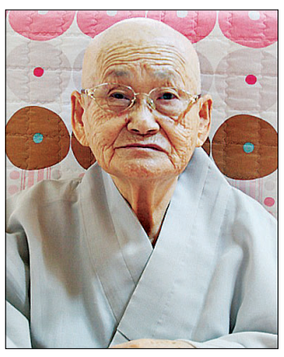
한편 미얀마는 지난 7~8월 우기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 양곤을 포함한 8개 지역서 44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댐 붕괴로 인한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그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만공 스님, 만해 스님에게 독립자금 전달"

수연 스님, 만공선양회
학술대회 자료집서 증언

"만공 스님 상경할 때마다
삼청공원서 만해 스님 만나"
원담 스님 전언을 구술증언
간월암 천일기도, 독립 기원



만공 스님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구술증언이 나왔다. 오랜 도반이던 만해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견성암에 주석 중인 원로 비구니 수연 스님〈사진〉은 9월 8일 경허 · 만공 선양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故 원담 스님(前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에게 전해들은 만공 · 만해 스님의 일화를 증언했다.

수연 스님이 원담 스님을 만난 것은 1942년 8월 간월암의 천일 기도 동참 스님들의 차 시중을 들어주는 시봉으로 차출됐을 때이다. 수연 스님과 친해진 원담 스님은 하루는 "만공 노스님이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라며 한양(현재 서울)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전했다.

원담 스님은 "총독부 회의에 참석했던 날도, 선학원 고승 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밤에는 삼청공원의 은밀한 장소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만났다"면서 "두 분이 나눈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독립자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은 똑똑히 봤다"고 술회하고 말조심을 당부하기도했다.

수연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이 벌렁거려 한동안 진정을 할 수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공 스님이 일본 순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을 골라 1000일 기도를 입재한 것은 모두 독립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만공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도 스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수연 스님은 "(만공 스님께서)3년을 하루같이 간절하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우리 절 근처에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고장의 자랑인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법문을 내릴 때 나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경청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은 간월암의 1000일 기도를 회향한 3일 후였다"면서 "해방의 그 날, 동참 제자들은 절 마당에 태극기를 들고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는 이때 우리 스님의 원력이 대단해 독립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허 · 만공 선양회는 9월 8일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2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중일 불교계, 삼국 유대 다진다

10월 11~13일 중국서 우호교류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저장성 영파 설보사(雪竇寺)에서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동북아 불교교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중일대회에서는 특히 12일 우호의 상징인 한중일 황금유대 기념비가 착공된다.

이번 한중일불교우호대회에는 한국측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다. 12일 퍼시픽 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열리며 법회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이 세계평화기원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천동선사에서 서울 조계사 다도팀을 비롯한 3국 다도팀이 다도시연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최초로 진행한다. 이들 다도대표팀은 각 30분간 자국불교의 고유한 다도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공식일정으로 칠탑사와 아육왕사 등을 순례한다. 14일 한국불교대표단은 비공식으로 보타낙가사 순례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軍인성 프로그램 현장 5면
리더에게 청하다 – 주호영 20대 국회 정각회장 14 · 15면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중국 또는 남방국가의
수입수행법이 아닌
한국에서 첫 출발한 독창적인 .....



깨달음 수행법
enlightenment buddhist performances

* 수행을 하게되면 ?
1. 1~2단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다
2. 얼굴이 맑고 밝아지며 젊어짐을 스스로 확인 한다
3. 사대가 강건하고 건강해져 감을 스스로 확인 한다
4. 자신의 업(業)을 관하고 인욕하게 되고 무의자재로 나아가며 삶에 활기찬 용기가 생긴다
5. 점점 평온해지며 깨달음 세계로의 보리심이 생긴다
6. 전문 수행자는 깨달음 경전과 깨달음 선(禪)수행으로 불가사의한 마니주를 체득 한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